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영향 요인

임미혜¹, 박창승^{1*}
¹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Mihye Lim¹, Changseung Park^{1*}

¹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C 광역시 소재 간호대학생 516명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조사를 하였으며,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는 3.03(±0.21)점이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3.49(±0.38)점,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2.68(±0.32)점이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비판적 사고성향($r=0.248$, $p=0.000$), 전문직 자아개념($r=0.180$, $p=0.000$)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 학년, 전문직 자아개념, 가족 중 의료요원 유무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 교육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on 516 nursing students in C Province and from September 15th to October 5th 2013.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were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xperience of biomedical ethic education, academic grad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family members' involvement in medical related areas. Considering this resul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of biomedical ethics for nursing students should reflect affecting factors identified.

Key Words : Biomedical ethic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student, Professional self-concept

1. 서론

현대사회는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불임되지, 불치 병 치유, 장기이식수술이 가능해지면서 인간 생명의 연장이라는 발전을 이루었으나, 인공임신중절, 대리모, 안락사, 연명치료중단, 배아복제, 유전자복제 등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1]. 이러한 생명의료와 관련된 문제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에 대해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생명경치풍토, 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윤리적, 사회적 우려를 낳

아,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검토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중요하게 되었다[2].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인간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에게도 생명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간호사들은 주로 치료거부, 안락사, 임신중절, 치료중단 시기와 같은 문제를 간호현장에서 접하게 되는데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

*Corresponding Author : Changseung Park (Cheju Halla Univ.)

Tel: +82-10-2360-0594 email:pcs010@chu.ac.kr

Received May 8, 2014

Revised (1st June 30, 2014, 2nd July 9, 2014)

Accepted July 10, 2014

와주어야 한다[3,4]. 그러나 간호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접하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서도 간호인력 부족, 조직 분위기, 환자 및 보호자 등의 이유로 상황에 따라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이 달라져 스스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고 [5,6].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은 또 다른 딜레마 상황을 유발하게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만족과도 연결이 되어 윤리적 딜레마 경험이 많은 간호사일수록 업무만족도가 낮고 이직의도가 높아 간호전문직 유지의 저해요소가 되기도 한다[6,7].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직 역할 중의 하나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을 통해 간호사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포함한 첨단 과학 기술의 적용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고, 부당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여[8] 생명의료 문제에 대한 현명하고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법적, 윤리적 책임인식능력을 전공 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용 능력,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과 협력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리더십능력, 연구수행능력, 글로벌 보건의료정책변화 대응능력과 함께 간호사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여[9], 간호사들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인식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생명윤리적 상황에서 책임을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대학에서의 학습과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임상현장에서 유지, 강화된다[10]. 그러나 임상현장 간호사들은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생명의료윤리교육 참여도 및 교육참여 의사가 낮아 임상현장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강화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며[11], 대학에서의 윤리교육이 도덕적 판단력과 윤리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다른 어느 시기보다 교육 효과가 있으며, 대학시기에 확립하는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가치관이 임상에서의 의사결정에 바탕이 되므로[12], 대학시기에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13].

우리나라대학의 생명의료윤리교육은 대부분 독립교과목으로 운영되기도는 타 교과목과 통합되어 운영되거나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되어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교육 여부가 결정되고[11,14], 생명의료윤리교육이 생명의료윤리의식 함양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와 효과가 없었

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어[15,16], 간호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생명의료윤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간호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2. 이론적 고찰

생명의료윤리는 생명과학 시대에 인간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윤리학이라는 의미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생명공학과 의학적 기술에 의해 발생된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하였다[3]. 생명의료윤리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성감별, 산전진단, 태아조작 이식, 대리모, 임신중절 등의 문제와 삶의 과정에서의 문제로 임상실험, 장기이식, 유전자치료, 성전환수술, 죽음과 관련된 문제로 안락사, 연명치료중단 등이 있다[1].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은 비간호계열학생들의 수준보다 높았으며[17],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들도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윤리적 갈등은 임상실습 시에 경험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1학년과 경험이 있는 4학년을 비교한 결과, 4학년에 비해 1학년이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이 높고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윤리적 갈등은 1학년에 비해 4학년이 많다고 하여, 4학년이 임상실습을 통해 윤리적 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되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관으로는 의사결정의 한계가 있어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계성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18], Moon[14]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이 높았으며 임상실습경험이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여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Kim[16]은 간호보건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교

육 경험이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과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 그룹 간에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 차이가 없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명의료윤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10,13,15,19], 종교는 생명의료윤리의식 영향요인으로 종교가 없는 간호대학생들에 비해 종교가 있는 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이 높았으며[11,14,16,18,20,21], 가족 중 의료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 의료인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다는 연구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16,18,20], 생명의료의식 교육 경험, 가족 중 의료인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 등[20], Kwon[13], Jung[19]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이 소명의식과 간호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았으며, 간호사들도 간호직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있는 간호사들이 그렇지 못한 간호사들에 비해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이 높아[22,23] 전문직 자아개념이 확고할수록 실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여 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윤리의식이 높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24], 간호전문직에 대한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지식습득과 문제해결 능력에 의해 함양되는데 [25], 문제해결능력은 정확한 정보를 선별, 수용하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에 근거하며, 윤리교육의 목표를 비판적 사고력 증강에 두어야 한다고 하여[26,27], 비판적 사고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게 하여 간호사들의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간호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가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대상자는 C지역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하였다. 동의서에는 설문자료를 연구에만 사용할 것과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및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 정도이었다. 설문지는 총 532부가 배포되었으며 이중 설문내용이 불충분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516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3.3 연구에 사용된 변수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항목으로는 학년, 종교, 가족 중 의료요원 유무,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 임상실습 경험,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로 구성하였다.

3.3.2 생명의료윤리의식

생명의료윤리의식은 건강과 관련된 맥락 및 생물학과 관련된 것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2], 본 연구에서는 Kwon[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태아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신생아 생명권, 안락사, 장기이식, 뇌사, 인간생명공학에 대한 9개 영역 49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찬성’ 4점, ‘대체로 찬성’ 3점, ‘대체로 반대’ 2점, ‘반대’ 1점으로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76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4 이었다.

3.3.3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바람, 태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Yoon[2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지적열정,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영역으로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발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3.3.4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Arthur[28]가 개발한 도구를 Sohng과 Noh[29]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 척도의 자가보고 도구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ohng과 Noh[2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5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87이었다.

3.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명의료윤리의식, 비판적 사고성향 및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ffe’s test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학생이 87.8%, 남학생 12.2%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25.3%, 2학년 24.4%, 3학년 24.3%, 4학년 26.0%이었으며, 종교는 없다 60.3%, 있다 37.7% 이었다.

가족 중 의료요원이 있다 20.7%, 없다 79.3%이었다. 생명의료윤리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24.4%, 없는 학생이 75.6%이었다. 임상실습경험은 있는 학생이 74.6%, 없는 학생이 25.4%이었으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54.8%, 만족 36.4%, 불만족이 8.8%이었다. 간호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61.6%, 만족 29.1%로, 불만족 9.3%이었다[Table 2].

4.2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판적 사고성향 및 전문직 자아개념 수준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03(\pm 0.2)점이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49(\pm 0.38),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68(\pm 0.32)이었다[Table 1].

[Table 1] Degree of Biomedical Ethic,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N=516)

Variable	Mean \pm SD	Min	Max	Range
Biomedical ethic	3.03 \pm 0.21	2.41	3.70	1.0~4.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49 \pm 0.38	2.07	4.41	1.0~5.0
Professional self-concept	2.68 \pm 0.32	1.41	3.78	1.0~4.0

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 비판적 사고성향 및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Table 2].

생명의료윤리의식은 3학년과 4학년이 2학년에 비해 높았으며(F=6.396, p <.001), 종교가 있는 학생(F=2.092, p =0.037)과 생명의료윤리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t =2.480, p =0.013) 높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2학년과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높았으며(F=5.671, p =0.001), 종교가 있는 학생(t =3.489, p =0.001),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t =3.737, p <.001)이 높았다. 임상실습에 매우 만족한 학생이 만족한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F=10.826, p <.001), 전공에 매우 만족한 학생이 불만족하거나 만족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F=3.718, p =0.025).

[Table 2] Biomedical Ethic,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516)

Variable	Categories	n	%	Biomedical ethic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63	12.2	3.00±0.22	-1.220	3.56±0.43	1.403	2.73±0.33	1.289
	Female	453	87.8	3.04±0.22	(0.223)	3.48±0.37	(0.161)	2.67±0.32	(0.195)
Academic grade	1 ^a	131	25.3	3.00±0.20	6.396 (<.001) b<c,d	3.38±0.39	5.671 (0.001) a<b,d	2.73±0.34	0.469 (0.004) a>c
	2 ^b	126	24.4	2.97±0.21		3.54±0.43		2.70±0.32	
	3 ^c	125	24.3	3.07±0.22		3.48±0.33		2.59±0.32	
	4 ^d	134	26.0	3.07±0.20		3.55±0.34		2.68±0.29	
Religion	Yes	205	39.7	3.05±0.22	2.092	3.56±0.34	3.489	2.72±0.31	2.196
	No	311	60.3	3.01±0.21	(0.037)	3.44±0.39	(0.001)	2.65±0.32	(0.029)
Family members's involvement in medical related areas	Yes	107	20.7	2.99±0.23	-1.791	3.53±0.36	1.218	2.68±0.33	-0.017
	No	409	79.3	3.04±0.21	(0.074)	3.48±0.38	(0.224)	2.68±0.32	(0.987)
Experience of biomedical ethic education	Yes	124	24.4	3.07±0.22	2.480	3.49±0.39	0.332	2.70±0.32	3.337
	No	392	75.6	3.01±0.21	(0.013)	3.48±0.33	(0.740)	2.59±0.32	(0.001)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385	74.6	3.04±0.22	1.830	3.49±0.39	3.734	2.66±0.31	-2.331
	No	131	25.4	3.00±0.20	(0.068)	3.34±0.39	(<.001)	2.73±0.34	(0.02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Unsatisfied ^a	34	8.8	3.00±0.26	0.621 (0.538)	3.47±0.40	10.828 (<.001) b<c	2.41±0.33	42.694 (<.001)
	Satisfied ^b	140	36.4	3.03±0.22		3.42±0.34		2.54±0.25	a<b,c
	Very satisfied ^c	211	54.8	3.05±0.21		3.60±0.37		2.78±0.29	b<c
Satisfaction with major	Unsatisfied ^a	48	9.3	3.02±0.20	0.146 (0.864)	3.41±0.41	3.718 (0.025) a,b<c	2.50±0.31	17.943 (<.001)
	Satisfied ^b	150	29.1	3.02±0.22		3.44±0.34		2.60±0.30	a,b<c
	Very satisfied ^c	318	61.6	3.03±0.22		3.52±0.39		2.74±0.31	a,b<c

전문직 자아개념은 1학년이 3학년에 비해 높았으며 (F=0.469, p=0.004), 종교가 있는 학생(t=2.196, p=0.029),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높았다(-2.331, p=0.020). 임상실습에 매우 만족과 만족인 학생이 불만인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F=42.694, p<.001), 전공에 매우 만족한 학생이 불만족하거나 만족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 (F=17.943, p<.001).

4.4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판적 사고성향 및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는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비판적 사고성향(r=.248), 생명의료윤리의식와 전문직 자아개념(r=.180),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 자아개념 (r=.48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s of Biomedical Ethic,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N=516)

Variable	Biomedical ethic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r(p)	r(p)	r(p)
Biomedical ethic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48 (<.001)	1	
Professional self-concept	.180 (<.001)	.487 (<.001)	1

4.5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일반적 특성인 학년,

[Table 4] Factors Influencing Biomedical Ethic

Factor	B	S.E.	β	t	p	Adjusted R ²	F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06	.028	.185	3.820	<.001			
Experience of biomedical ethic education	.093	.023	.181	4.021	<.001			
Grade 4	.074	.022	.150	3.342	.001	.110	12.581	<.001
Professional self-concept	.077	.033	.114	2.344	.019			
Family members's involvement in medical related areas	.051	.023	.094	2.244	.025			

종교, 가족 중 의료인 여부,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 임상실습경험,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독립변수 중 학년(1학년=0, 2학년=1, 3학년=2, 4학년=3은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으며 변수선정방법은 단계선택(stepwise)방법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잔차정규성은 Dubin-Watson 통계량이 1.820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 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검증에서도 공차한계가 .735-.995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005-1.346으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생명의료윤리의식 교육경험, 학년, 전문직 자아개념, 가족 중 의료요원 유무이었으며(F=12.581, p<.001),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1%이었다[Table 4].

5.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생명의료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평점 3.03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분석한 Jeon[17]의 연구에서의 2.94점, Kwon[13]의 연구에서의 2.99점과 생명의료윤리의식 교육 효과를 분석한 Yoo와 Shon[15]의 연구에서 교육 이후의 생명의료윤리의식 평균평점인 2.99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본 연구대상자가 일 지역 소재 대학으로 한정되어 추후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성향 수준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평점 3.49점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분석한 Jang과 Kwag[30]의 연구에서의 3.17점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교과과정이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문제중심학습법으로 운영되어 비판적 사고에 대한 학습경험 결과로 사료된다.

전문직 자아개념 수준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2.68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분석한 Shin과 Cho[31]의 연구결과인 2.91점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하는데 본 연구대상자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루 분포되어있으나 Shin과 Cho[31]의 연구대상자는 3년제 3학년과 4년제 4학년으로 간호에 대한 교육기회가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생명의료윤리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종교 생활 참여도가 윤리적 가치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3,13,14,17], 생명의료윤리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생명윤리 교육의 질과 양이 충분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3,5,13]. 이는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규 교과과정에서 생명의료윤리 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며[13], 효과적인 생명의료윤리 교육을 위해서는 윤리의식이나 가치관을 전달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27],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내용과 교수방법 및 질 등을 고려한 추후연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학생들의 학년 간 생명의료윤리의식, 비판적 사고 성향 및 전문직 자아개념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은 3학년과 4학년 학생이 2학년보다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임상실습이 실습기간이 길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 Moon과 Jaung[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 1학년이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4학년보다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이 높았으며 4학년이 임상실습 동안 윤리문제를 체감하면서 기존의 윤리적 기준이 혼돈된 결과라고 분석한 Kim과 Lee[18]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Moon과 Jaung[14]은 임상실습 경험과 임상실습기간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병원환경과 학생, 학교와 연계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변화의 필요성과 임상실습 전, 중, 후 기간 동안 교과과정과 연계된 생명의료윤리 교육커리큘럼 계획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추후 세분화된 임상실습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성향 수준은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윤리교육여부가 비판적 사고성향에는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10]. 비판적 사고 성향은 2학년과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높았으며, 임상실습경험이 있고 임상실습에 만족하며,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 영향 요인이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다는 선행연구[30]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임상실습 경험이 학년 증감에 따라 본인의 차이를 보이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나, 임상실습이 주로 3, 4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특성에는 임상실습경험을 반영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직 자아개념 수준은 1학년이 3학년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1학년이 가장 높았다.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실제적인 간호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하는 교육과정으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2]. 그러나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이론과 실제의 차이,

간호사들의 비교육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이상적인 간호직과 실제의 간호직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32,33]. 본 연구결과에서도 임상실습에 만족할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임상실습 경험 분석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과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 및 학생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생명윤리교육경험, 학년, 전문직 자아개념, 가족 중 의료요원의 유무였으며, 가장 높은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으로 변수의 설명력은 11%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비판적사고성향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입식 강의보다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차이에 따른 확대 연구, 임상실습 특성 및 생명의료윤리의식 확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함으로써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논문은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C 광역시 소재 간호과 재학생 516명으로 자료수집은 2013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은 4점 만점에 3.03점이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 수준은 5점 만점에 3.49점, 전문직 자아개념 수준은 4점 만점에 2.68점이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생명윤리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임상실습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

생명윤리의식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생명의료윤리 교육경험, 학년, 전문직 자아개념, 가족 중 의료요원 유무이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 영향 요인인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간호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수를 확대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및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S. S. Han, B. H. Kong,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e*. Sanjin print Co. 2002.

[2] Gorovitz, S. Bio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Monist*, 20(1), pp.3-15. 1977.
DOI: <http://dx.doi.org/10.5840/monist197760128>

[3] S. J. Kwon,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3.

[4] Y. I. Moon, et al. A Study on the Clinical Nurse's Ethical Valu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9(3), pp. 541-557, 2003.

[5] K. J. Lee, S. Y. Yoo, Relationships between Nurses' Ethical Dilemma, Coping Typ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Research*, 17(1), pp.1-15, 2011.
DOI: <http://dx.doi.org/10.3740/MRSK.2007.17.1.001>

[6] S. S. Han, The Moral Distress Experienced by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2(2), pp.31-47, 2005.

[7] E. Y. Choi, G. H. Kim, A study o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nephrology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2(3), pp.345-355. 2000.

[8] Korea Nurses Association, Ethical Principles of Korean Nurses http://www.koreanurse.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notice&no=66. 2013.

[9]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assessment standards for education of korea(the course of the nursing bachelor's degree).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2.

[10] M. S. Yoo, H. S. Park,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ethics Awarenes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f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1(1), pp.51-60, 2010.

[11] J. Y. Ha, D. H. Kim, S. K. Hwang, The Perception of Biomedical Ethics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2), pp.216-224, 200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9.15.2.216>

[12] M. J. Kim, A Survey of the Korean Nurses' Opinions toward the Ethical Problem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pp.15-30, 2001.

[13] Y. H. Kwon,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2), pp.262-271. 2009.

[14] M. Y. Moon, A. H. Jaung, Correlation Between the Nursing Practice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3(2), pp.49-62, 2012.

[15] M. S. Yoo, K. C. Shon,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2(2), pp.61-76, 2011.

[16] I. S. Kim, Effects of Bioethics Education on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of Freshman Nursing and Health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4(1), pp.1-13, 2013.

[17] H. S. Je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3), pp.401-410, 2011.

[18] E. H. Kim, E. J. Lee, A Comparison of First-Yea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Ethical Values and Understanding of Biomedical Ethic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15(1), pp.78-95, 2012.

[19] G. S. Jeong, The Effect of Gender, Ethical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on the Consciousness

-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Students in one Nursing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 pp.5672-5681,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72>
- [20] H. Y. Ahn, B. S. Cho, S. H. Choi, W. G. Choi, M. Yu, Bioethical Percep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pp.98-107, 2008.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8.14.1.098>
- [21] W. Y. Choi, M. Y. Kim,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Regarding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16(1), pp.1-9, 2012.
- [22] M. K. Jeon, M. Y. Moon, A. H. Jaung, Relationship between Nurse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The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4(1), pp.27-46, 2013.
- [23] K. N. Kang,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Small-Medium sized Hospital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8(2), pp.155-165, 2012.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2.18.2.155>
- [24] Y. S. Kim, M. S. Yoo, J. W. Park, Y. J. Son, Relationship between Nurses' Self Concept and Ethical Concep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7(3), pp.415-423, 2001.
- [25] I. Kwon, A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Medical Ethics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9(1), pp.60-72, 2006.
- [26]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4.
- [27] K. S. Choi, Teaching Medical Ethics and Critical Think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2), pp.232-246, 2004.
- [28] Arthur, D.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Newcastle, 1990.
- [29] K. Y. Sohng, C. H. N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1), pp.94-106, 1996.
- [30] H. J. Jang, Y. K. Kwag,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4(9), pp.4380-43871,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9.4380>
- [31] K. A. Shin, B.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1), pp.46-56,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1.046>
- [32] M. H. Sung,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8(1), pp.18-24, 2012.
- [33] J. A. Y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3), pp.325-334, 2004.

임 미 혜(Mihye Lim)

[정회원]



- 2001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산업간호

박 창 승(Chang-Seung Park)

[정회원]



- 1996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3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건강증진